

제4기 위암환자에서 절제수술의 적응증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김태봉, 유완식

(목적) 제4기 위암의 주된 예후인자는 암의 주위장기침범, 원격 림프절전이, 간전이 및 복막전이인데 절제수술로써 연명효과나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제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절제수술이 가능하더라도 병기결정인자의 구성(수 및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자들은 제4기 위암에서 절제수술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자를 찾고자 이 연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위암 때문에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최종 병기가 제4기인 환자 505명을 대상으로 하여 병기결정인자의 구성에 따른 평균 생존기간을 위절제술과 림프절확청술을 시행받은 군(절제 군, 314명)과 절제술을 시행받지 않은 군(비절제 군, 191명)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병기결정인자의 수가 한가지인 군(단일 인자군, 242명)에서는 양 군 사이의 생존율도 비교하였다. TNM 분류 및 병기의 판정은 1992년 UICC의 분류기준을 따랐고, 간전이 및 복막전이에 대한 분류는 2002년 대한위암학회의 기준을 따랐다. 병기결정인자는 T 인자(T4N2H0P0), N 인자(T<4N>2H0P0), H 인자(T<4N<3H1P0), P 인자(T<4N<3H0P1) 및 이들의 조합으로 그 수 및 종류를 구분하였다. 평균 생존기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로 하였으며, 생존율은 Kaplan-Meier 방법으로 산출하여 log-rank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p-value<0.05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 병기결정인자의 수에 따른 절제 군과 비절제 군 사이의 평균 생존기간은 단일 인자 군에서 21.4 ± 23.3 개월과 5.9 ± 4.8 개월($p < 0.001$), 두 개 인자 군에서 13.8 ± 17.5 개월과 6.5 ± 6.6 개월($p = 0.003$)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기결정인자의 종류에 따른 절제 군과 비절제 군의 평균생존기간은 T 인자만 있을 때 17.4 ± 18.2 개월과 6.3 ± 4.7 개월($p = 0.007$), N 인자만 있을 때 19.2 ± 21.1 개월과 4.6 ± 3.1 개월($p < 0.001$), P 인자만 있을 때 26.4 ± 27.0 개월과 6.1 ± 5.3 개월($p < 0.001$) 및 N 인자와 P 인자가 있을 때 20.0 ± 27.1 개월과 5.7 ± 5.1 개월($p = 0.02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단일 인자군의 5년 생존율은 절제 군에서 10.2%, 비절제 군에서 0%이었다($p < 0.001$).

(결론) 제4기 위암환자 가운데 간전이를 제외한 병기결정인자가 한가지인 경우 및 원격림프절전이와 복막전이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절제술 및 광범위 림프절확청술과 함께 합병절제 및 복강내 화학요법의 시행 등 적극적인 치료로 연명효과와 함께 완치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제수술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절제수술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겠다.